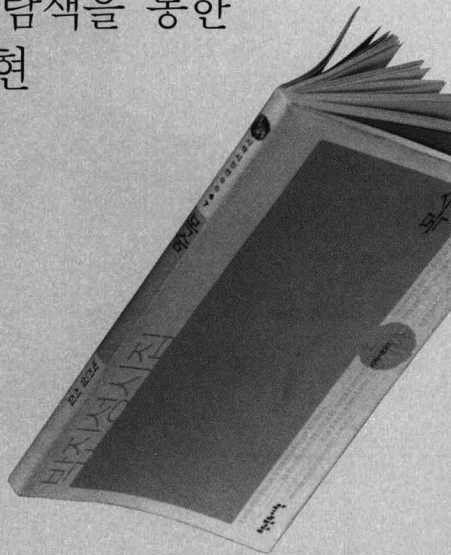


시집 《목숨》 선정기

-병과 삶의 탐색을 통한 자의식 구현



위기는 기회라기보단, 진정성 회복의 계기다. 평온하지 않은 물상과 사상들을 바라보며, 다가올 격동과 변신을 위해 스스로를 비장하게 버리는 태도. 그것만큼 진지하고 엄숙한 게 있을까. 이는 모든 것이 지닌 의미를 새롭고 귀하게 새겨보는 창조행위나 다름없다. 것처럼 팽팽한 비장감을 대상에 덧씌운, 유난히 진지한 서물들이

이달엔 눈에 많이 띄었다. 이들은 과학과 종교의 정반합적 어울림에 천착하고, 우리가 처한 공동체의 합목적적 가치를 고민했다. 만보(漫步)를 즐기듯 삼라를 일별하되, 결코 유유자적치만은 않은 시선으로 그 본질에 연연했다. 자칫 사물이 지닌 본래의 것들에 무심해 버리는 지적 춘곤증(春困症)을 떨쳐내기에 족한 것들이다.

그런 책 가운데 특별히 분석적이고 지적 공력이 돋독한 몇권을 꼽아보았다. 최장집의 《위기의 노동》, 고시다 타카시·이시와타 노부오의 《세계의 역사교과서》, 이종국의 《한국의 교과서상》, 진중권의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김숨의 《투견》, 김용준의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안치운의 《길과 집과 사람 사이》, 박진성의 《목숨》, 김수경의 《노랫말의 힘, 추억과 상투성의 변주》, 학교대사전 편찬위원회의 《대한민국 학교 대사전》 등이 그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기자들은 반나절 가까운 시간 치열한 입씨름을 벌인 끝에 후보작 3권을 고르는 데 합의했다. 《위기의 노동》과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목숨》이 그것이다. 세 권 모두 주제에 대한 세밀한 사유와 묘사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들이다. 주제를 에두른 지언이 특유의 변용 또한 예사롭지 않은 책들이다.

《위기의 노동》은 고려대 최장집 교수의 노동·경제 철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신이 밴 문장으로 풀어낸 논문집이다.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학술지 <아세아연구>에 실린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위기의 노동》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 494쪽 | 값 18,000원

최 교수 외 15명의 논문을 엮은 책.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춘 민주주의, 사회적 시민권, 복지 급부가 아닌 복지권이 부여된 사회가 한국경제와 노동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이다. 현실에 선 이런 목표에 소홀한 노무현 정부와 민주정부, 민주화세력에 대한 질타도 서슴치 않는다.

《세계의 역사교과서》 고시다 타카시·이시와타 노부오 엮음 |

작가정신 | 362쪽 | 값 13,000원

유럽,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선 근현대사의 주요 쟁점이 어떻게 다루지고 있을까. 이 책은 한 일 교과서대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해온 두 명의 일본인 학자가 배타적 내셔널리즘을 조장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왜곡된 역사관을 비판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한국의 교과서상》 이종국 지음 | 일진사 | 456쪽 | 값 22,000원

교과서는 곧 거역할 수 없는 진리의 상징인양 받아들여진다. 교과서는 그러나 학습의 단계적인 과정을 안내해 주는 길잡이란 표현이 가장 정확할 듯. 근대 교과서(신식 교과서)가 우리나라에 선보인 지 올해로 110주년이다. 이를 기념해 교과서의 역할을 되짚어 본 책이다.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진중권 지음 | 휴머니스트 | 376쪽 | 값 15,000원

'상상력 혁명'이라는 코드로 놀이와 예술의 세계를 들여다본 놀라운 발상의 책. 예술 작품에 등장한 20가지 놀이를 소개하고, 이것이 어떻게 상상력으로 뻗어갈 수 있는지 살핀다. 본문은 20개의 놀이를 '우연과 필연', '숨바꼭질', '수수께끼' 등 7개 주제 아래에 나누어 싣고 이들 놀이의 미학적 의미를 살피는 식으로 전개된다.

이달의 책 후보 도서



로, 모두 각기 다른 필자가 쓴 16편의 논문이 수록 돼있다. 특히 최 교수가 쓴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은 “사회경제적 기반의 본격 이슈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여실히 드러난 논문이다. 최 교수는 이런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민주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결국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 일 수밖에 없다고 개탄한다.

우리 시대를 누구보다 진솔하게 갈파해온 미학자 진중권 씨가 범상치 않은 ‘사고’를 쳤다.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이 그것이다. 책은 ‘상상력은 곧 생산력이 될 것’이란 테크놀로지 철학을 서술의 토대로 삼고 있다. 모두 20가지 놀이를 7개 주제로 나눠 소개하고, 이들의 미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저자는 놀이가 어떻게 예술과 상상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상상력 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사유의 특징인 한 비선형성, 파편성, 중의성 등 일곱 개의 키워드가 책의 형식과 내용 속에 들어 있다.

혹자는 그랬던가. 박진성의 시는 내성화의 경향으로 나아가되 주제, 자어에 함몰되지 않는다고. 등단 4년째를 맞는 박진성이 첫 시집 《목숨》을 내놓았다. 마치 목숨이라도 건듯, ‘부재하는 기원’을 탐색하고, ‘분위기 집중’을 위한 언어탐구에 몰두했다. 그의 시

적 변용은 병(상습불면, 자살충동, 공황발작)의 기원에서 찾는다. 삶에 대한 자의식에서일까. 그는 시중 병과 삶에 대한 처절한 탐색의 아름다움에 목말라 한다. 음습한 죽음의 이미지들과 그 맞은 편 의 안면, 평온, 고요 등의 시어들은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 절묘한 하모니를 이룬다. 때론 이런 방식의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기원이 나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서슴없이 표현하기도 한다.

‘시가 없는 세상’ 일지언정 ‘시적 세상’을 향해 시어를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 누구도 선뜻 시를 내려 하지 않으려는 세상에서 박진성은 애오라지 시를 내기 위해 모든 것을 던졌다. 꾀적꾀직한 메이저 출판사들을 마다하고, 아직 시작에 불과한 ‘천년의 시작’에 시집 출간을 의뢰한 것도 그런 문학적 결기 때문이다. 평론가 박수연 말마따나 “그의 시를 읽으면 마음이 화끈거리고 눈이 흐려지는” 것도 단순히 운문에 취한 감상만은 아닐터.

그래서 <출판저널> 기자들은 모처럼 달리 마음을 먹었다. 아니 감동을 먹었다는 편이 옳으리라.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을 제치고 만장일치로 시집 《목숨》을 ‘이달의 책’으로 꼽은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추천**



《투견》김숨 지음 | 문학동네 | 320쪽 | 값 8,800원

작가 김숨의 첫 소설집. 표제작 <투견>을 비롯해 <지진과 박쥐의 숲>, <유리눈물을 흘리는 소녀> 등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표한 열 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등장인물들의 황폐한 현실을 통해 산업사회의 고단함을 형용하고 있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김용준 지음 | 돌베개 | 400쪽 | 값 18,000원

역사학, 인류학, 신학, 윤리학, 존재론의 성찰을 받아들이고 동물행동학, 생명과학, 우주학, 인지과학 분야의 과학적 발견들을 참조해 다시 신의 문제로 되돌아오는 내용이다. 분과학문 체계의 한계를 벗어나 많은 학문을 넘나들며 저자는 종교와 과학의 문제가 전문가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역설한다.

《길과 집과 사람 사이》안치운 지음 | 들린아침 | 336쪽 | 값 14,800원

연극평론가 안치운 씨의 세 번째 기행산문집. 전작 《그리움으로 걷는 옛길》 이후 나온 이번 산문집은 그 소재가 유연하고 스케일이 커졌다. 이 책에서는 ‘길’과 함께 서 있는 ‘집’과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눈에 띈다.

《노랫말의 힘, 추억과 상투성의 변주》김수경 지음 | 책세상 | 150쪽 | 값 3,900원

대중가요 노랫말에 담긴 대중의 정서와 문화를 탐구한 책. 저자는 기존의 트로트, 포크, 민중가요와 지금의 댄스가요, 랩, 힙합을 집착하게 하는 변화의 요소가 공존했던 1980년대를 주목한다. 특히 느린 곡조 위에 사랑과 추억을 주제로 대중의 기호나 취향을 풍부하게 반영한 발라드 노랫말이 지닌 미학적, 사회적 의미를 고찰한다.

《대한민국 학교대사전》학교대사전 편찬위원회 엮음 | 이레 | 272쪽 | 값 9,000원

2005년 2월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열아홉 동갑내기 세 사람이 엮은 책. 처음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폭발적 인기를 끌기도 했다.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구성을 더욱 가다듬은 이 책은 700여 개의 표제어 외에 200컷의 자료 사진과 삽화가 실려 있다.